

동아지중해 교류형 스토리텔링 시론

한국 고대설화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orytelling of interchange in East Asian Mediterranean

저자 (Authors)	김정하 Kim, Jung-Ha
출처 (Source)	동북아 문화연구 33 , 2012.12, 153-168(16 pages)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33 , 2012.12, 153-168(16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북아시아문화학회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Cultur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068157
APA Style	김정하 (2012). 동아지중해 교류형 스토리텔링 시론. 동북아 문화연구, 33, 153-168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1.229.139.*** 2021/09/17 11:3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동아지중해 교류형 스토리텔링 시론*

- 한국 고대설화를 중심으로

김정하**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본론(2) |
| II. 본론 (1) | 1. 해양관광 루트 설정 |
| 1. 서북 스토리의 스토리텔링 | 2. 이문화에 대한 이해 |
| 2. 처용, 허황옥, 석탈해 스토리의 스토리텔링 | IV. 결론 |
| 3. 연오랑 세오녀 스토리의 스토리텔링 | |

I. 서론

2012년 10월 부산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이 중일 간의 영토분쟁으로 순항코스가 단축되는 가 하면 한일 간에도 같은 문제로 각종 문화행사가 줄줄이 취소되었다. 이처럼 동아시아 3국 간의 교류는 허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다. 달리 보면 관광이나 문화교류에도 국민국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으므로 교류에 앞서 상호간의 문화적 동질성 확보가 시급하다.

이에 이 글은 고대 설화를 재조명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문화적 동질성을 스토리텔링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스토리텔링이란 역사나 설화에서 추출한 스토리에서 역사나 문화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파악한 후, 주요 모티프를 찾아내어 이를 다양하게 재창조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역사를 보면, 고대 ‘동아지중해’에서는 오늘날 상상하는 것 이상의 빈번한 해상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사학자들이 단정하는 것처럼 고대에 민족국가의 경계나 국가적 귀속 관념이 확실했으리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은 진나라 때 난리를 피해 바다를 건너 사람들이 신라에 살았고, 진한(辰韓)은 화폐대용의 철을 팔며 남해를 넘나드는 대외무역을 했다고 기록했다. 『삼국유사』는 석탈해는 바다 건너 용성국에서 신라에 온 이주민임을, 『삼국사기』는 왜국에서 온 귀화인 호공(瓠公)이 신라의 재상이

* 본 연구는 2012년 한국해양대학교의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된 「2012년도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강화지원사업」의 연구결과물이다.

** 한국해양대 동아시아학과 교수

되었음을 적고 있다. 그 밖에도 백제 무령왕은 일본 열도에서 태어나 백제의 해양문화를 부흥시켰고, 신라의 장보고는 동아시아의 해상무역을 독점하고 서역에서 오는 물품을 이용한 중계무역을 했으며, 왜구는 쓰시마(對馬島), 이키(壹岐)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중국과 한반도 사이 동아시아 바다를 넘나들었다.

그런 왕래와 교류가 이루어진 ‘동아지중해’¹⁾는 단순히 지명이 아니라 역사적 교류 공간의 명칭으로, 그 공간에서 고대 동아시아인들은 해류와 조류 등 해상조건의 경험을 공유하면서²⁾ 각자의 필요에 의해 주변문화를 공유했다. 그러한 역사적 현상에 대해 윤명철이 사용한 ‘환류(還流)’란 개념은 실제로는 ‘교류’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마치 동아지중해의 바다 물이 오고가며 흐르듯 어느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일직선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환류(還流)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 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사론에서는 의식과 무의식의 추동에 의한 전개되는 스토리에서의 ‘바다’는 주제적 모티프로서, ‘물’의 속성이 스토리를 좌우하는 것이라 본다. ‘물(바다, 강)’에 대해 애드 드 브리스는 ‘집단무의식 ; 성적 욕구, 시험과 모험에 대한 열망, ‘시간’, ‘영원성’, ‘정화(淨化)’, ‘삶의 특별한 체험으로서의 죽음과 비통함’, ‘조화’ 등으로 정리한 바 있는데³⁾ 이밖에도 ‘물’은 ‘세대 : 시간’이거나 ‘갱신(更新)’, ‘재생’, ‘죽음’, 그와 반대의 ‘영원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의 자연이 이처럼 다양하면서도 때로 상반된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므로 스토리텔링에서도 다양한 의미가 선별되고 연결되는 다양한 모티프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역사적 사실(史實)과 허구적 사사를 합한 ‘팩션(faction)’으로서의 원스토리를 발굴하고 그 표층구조와 더불어 심층구조를 추출하여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전개할 가능성을 엿보고자 한다.⁴⁾⁵⁾ 이를 위해 원래의 스토리를 마란다공식⁶⁾에 대입하여 보면 유사해결(QS : Quasi Solution), 유사결과(QR : Quasi Result), 그리고 최종해결(FS : Final Solution), 최종결과(FR : Final Result)라는 스토리의 구조(QS : QR :: FS : FR) 추출이 가능하다. 상식적 사실들의 구축으로 이루어진 유사해결로부터 유사결과까지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확장되어 최종해결을 통해 최종결과에 이르면서 심층적 이해를 통해 진정한 해결을 모색하는 스토리로 발전한다. ‘도해(渡海)’ 모티프가 전자의 표층구조를 이끄는 것이라면 후자의 심층구조는 ‘환류(還流)’ 모티프에 의해 전개된다고 하겠다.

- 1) 동아지중해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연계를 전제로 한 명명이며 일본 학계가 이를 즐겨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일본의 팽창주의와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기원전 59년에 ‘광개토대왕비문’에 “동해”라는 명칭이 나와 있으니 한반도가 주축이 된 고대설화의 스토리를 설명하기에 더 적합하기 때문이다.
- 2) 윤명철(2003), 「해양사관으로 본 한국 고대사의 발전과 종언」, 『한국사연구(123)』, p.179.
- 3) AD de Vries(1976), 『Dictionary of Symbols and Imagery』, NORTH PUBLISHING COMPANY, p.406.
- 4) 이윤선,한은선(2007), 「한국 서복전설의 현황과 관광자원화 방향」, 『도서문화』제30집, p.147.
- 5) 기존연구 중 「해양관광의 활성화와 해양크루즈산업의 육성과제」(김성곤(20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나 「경남지역 관광스토리텔링 활성화 방안」(김태영(2008), 경남발전연구원), 「사랑과 낭만의 도시 춘천 : 춘천시 인물설화의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컨설팅」(이학주(2011), 박이정) 등 분야별 연구 성과는 다수 존재하지만 융복합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 6) 김열규 외(1985), 『민담학개론』, 일조각, pp.195-197.

나아가 이러한 역사나 민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관광과 이문화 이해에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에는 중국, 일본의 사례가 남김없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동아시아의 역사와 설화가 워낙 방대한 터라, 우선 한국 고대설화의 주인공들인 서복과 허황옥, 처용, 연오랑 세오녀, 석탈해 등에 관한 역사와 설화를 묶어낸 원스토리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한다.

II. 본론(1)

1. ‘서복’ 스토리의 스토리텔링

1) 원(原)스토리의 구조

『사기. 진시황 본기』에 의하면 연나라 사람 서복이 글을 올려 바다 가운데 영산 세 곳 봉래, 방장, 영주에 신선이 산다고 고했다.(QS) : 서복이 재계(齋戒)를 하고 진시황에게 동남동녀를 데리고 찾아보겠다고 청했다.(QR) :: 진시황이 서복에게 동남동녀 수천을 팔려 보내며 바다에서 신선을 찾으라 명했다.(FS) : 동남동녀를 거느린 서복은 불로초를 찾아 동쪽으로 떠났으나 돌아오지 않았다.(FR)

2) 심층구조의 ‘환류’ 모티프

진시황은 12년간 재위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정책을 펴면서 중요한 북방항구를 돌아보았고, 중국역사상 최초로 해상 조운(漕運)을 실현하는 등 해양중시 정책을 펼친 군주였다.⁷⁾ 또 『삼국지 위지 동이전』이나 『후한서 동이열전』에 나오듯 진나라 사람들이 산둥에서 해상을 통해 한반도로 건너가 진한(辰韓), 혹은 진한(秦韓)을 세운 바 있다.⁸⁾ 것처럼 소상한 바다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터라 ‘도해’ 모티프에 의한 스토리가 성립될 수 있었다. 즉, 산동성 낭야 사람 서복이 바다 가운데 봉래와 방장, 영주라는 신선의 세계를 알고 있다고 고하자 진시황은 그에게 불로초를 구하라며 동남동녀를 팔려 파견한다.

그런데 스토리는 그러한 표층구조에서 끝나지 않는다. 불로초를 구하기 위한 서복의 ‘도해’를 계기로 동아시아중해 연안의 한국과 일본에는 봉래, 방장, 영주라는 삼신산에 대한 정보와 영생불사를 추구하는 도교적 사고가 유포된다. 나아가 한국인과 일본인은 자신의 나라야말로 그런 원망(願望)의 공간, 현실적 구현(incarnation)의 공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서복 스토리는 한국이나 일본에 전달된 후의 반작용으로 마치 흘러온 바닷물이 다시 흘러가듯 ‘환류’를 일으킨다. 그 생각의 형성에는 앞선 문물을 지닌 중국문화의 영향도 컸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시간’, ‘영원성’에 대한 무의식적 바탕 위에서 ‘바다 속의 삼신산’이 자신의 땅일지

7) 孫光圻(1989), 『中國古代航海史』, 海洋出版社, pp.124-126.

8) 장페이페이, 김승일 역(2005), 『한중교류사』, 범우, pp.45-46.

모른다는 주체적 사고가 더 크게 작용했으리라 본다.

QS(블로초 찾기) : QR(서북의 도해(渡海)) :: FS(자신의 땅 재인식) : FR(도교 전파)

이처럼 서북의 도해는 진시황의 육땅의 추구하고 함께 동아시아중해 연안국가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사는 고향을 다시 돌아보고 도교사상을 신봉하는 결과를 낳았다.

3)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전개

서북 스토리는 블로초를 찾기 위한 도해라는 여정 자체 뿐 아니라(QS, QR) 그에 깃들인 ‘영생 추구’, 혹은 ‘블로장생’ 사고가 드러나는 스토리텔링을 낳는다.(FS, FR) 당연히 중국에서는 전자 타입의 스토리텔링이 주를 이루는 데 비해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후자와 같은 스토리텔링이 주로 나타난다.

서북 스토리는 우선 중국 현지에서 블로초를 찾아 동쪽 바다로 여행한다는 점만으로도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낳기에 족하다. 중국인들이 서북이 출항한 곳으로 보는 산둥성 낭야군 서산 외에도 해주만 연안 연운항에 가까운 구산 연안 일대,⁹⁾ 그밖에도 절강성 자계 및 주산, 강소성 해주지방, 산둥성의 등주만과 교주만, 영성만, 천진두, 석도만, 그리고 하북성 진황도 및 황화 근처 등 각지에는 다양한 서북 관련 스토리텔링이 전해지고 있다.(QS, QR)

스토리텔링 #1 : 서북(혹은 서불)이 산둥성 낭야(혹은 구산, 자계 등)을 떠나 블로초를 찾아 있는 동해바다 속의 삼신산(혹은 한국, 일본 등)으로 떠났다.

그에 비해 한국과 일본에 전해지는 서북 스토리텔링은 서북이 찾아 나선 ‘블로초’나 ‘봉래산’이 실제로 자기 지역에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스토리텔링은 어느 특정인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 더욱 그럴싸하고, 자기 지역을 ‘블로장생’의 이상향으로 보는 자부심의 근원이 되어주고 있다. 예컨대 한국의 전남 고군산도와 나로도, 전남 고흥 나로도, 전북 남원, 전북 정읍, 전북 고창, 전북 구례 등에는 도교적 이상향으로 여기는 삼신산의 지명이 전해지며,¹⁰⁾ 제주의 금당포와 정방폭포, 경남 남해, 전남 구례, 전남 진도, 전남 고흥, 인천 덕적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전남 여수 등에도 서북 관련 스토리텔링이 전해진다.¹¹⁾ 특히 제주는 서북이 황해를 거쳐 조천포에 배를 대고 신선의 열매라는 암고란을 얻은 후 서귀포를 거쳐 일본으로 갔다는 스토리텔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¹²⁾ 또 일본 큐슈의 사가평야를 비롯하여 모로도미쵸, 사가시, 와카야마현 신구우시,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 등지¹³⁾에 남아있고, 쿠마노나 후지산 인근에서도 서북이 중국에 그곳에 정착했

9) 이운선. 한은선, 앞의 글, p.136.

10) 이운선. 한은선, 위의 글, p.145.

11) 이운선. 한은선, 위의 글, p.145.

12) 진성기(1993), 『제주도 전설』 백록, p.158.

13) 미즈노 아키라(2002), 「일본에서의 徐福에 관한 傳承과 信仰」, 『제주도 연구』21집, 제주학회, p.317.

다는 전설을 마치 사실처럼 전하고 있다.(FS, FR)

스토리텔링 #2 : 서북(혹은 서불)이 찾던 동해바다 속의 삼신산(혹은 한국, 일본 등)은 바로 내가 사는 이 지역이며 여기에는 불로초가 있다.

서북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시대적 추세에 따른 재창조는 한국과 일본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그럴싸하여 도리어 중국 하북성에서 한국의 제주도를 찾아와 그 스토리텔링의 증거물들을 눈 여겨 보기에 이르렀다. 이는 마치 신중국 건설 후 문화대혁명 등으로 오랫동안 공자의 제사를 중단했던 중국이 개혁개방 후 이를 재현하고자 한국과 대만에서 지속해온 석전대제(釋尊大祭)를 참고해 부활한 것과 같다.(FS, FR)

스토리텔링 #3 : 한국, 일본의 서북 스토리텔링은 불로초를 찾아 영생불사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던 고대 동아시아중해의 도교사상을 보여준다.

서북 스토리텔링에서 그의 출발지부터 도착지에 이르는 ‘환류’가 동아시아중해의 문화현상이 되다시피 한 것이다.

2. 처용, 허황옥, 석탈해 스토리의 스토리텔링

1) 원(原)스토리의 구조

현강왕이 개운포 바닷가로 놀이를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덮이며 갑자기 천지가 어두워졌다.(QS) : 왕이 용을 위하여 절을 짓도록 명하자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동해용이 일곱 아들을 데리고 나와 알현했다.(QR) :: 왕을 따라 경주로 간 처용은 역신을 물리치는 신이(神異)를 보여준다.(FS) : 백성의 추앙을 받는 처용이 문신(門神)으로 좌정한다.(FR)

위와 같은 처용 스토리와 유사한 구조를 지닌 고대 설화로 허황옥과 석탈해 스토리를 들 수 있다.

우선 허황옥 스토리에서는, 수로왕이 하늘에서 하강하자 때맞춰 상제의 명을 받았으며 인도 아유타국(阿踰陀國)의 공주 허황옥이 찾아온다.(QS) : 허황옥이 별포(別浦)에 이르자 수로왕은 유천간(留天干) 등 많은 신하들을 보내어 맞이하게 한다.(QR) :: 허황옥이 수로왕의 신하들이 궁궐로 모시려는 청을 거절하자 수로왕이 직접 예를 갖추어 허황옥을 맞아들인다.(FS) : 수로왕과 허황옥이 혼인하여 가락국을 다스리고 허황옥은 김해 허씨 시조가 된다.(FR)

다시 석탈해 스토리에서는, 왜국 동북 1천리에 있는 용성국(龍城國)에서 알로 태어나 버려진 석탈해가 궤짝에 실려 계림 동쪽 아진포에 닿는다.(QS) : 석탈해가 숲을 다루던 대장장이

의 후예임을 자처하며 호공의 집을 빼앗는다. ∴ 석탈해가 노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다.(FS) : 석탈해가 재위 23년 만에 죽어 동악(東岳)의 신이 된다.(FR)

2) 심층구조의 ‘환류’ 모티프

처용이 페르시아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김원룡은 처용이 중국 광주(廣州), 천주(泉州), 항주(杭州), 양주(揚州) 등 동남해안과 한반도의 남해안을 통과해 동해안 개운포에 닿은 것으로 본다. 이를 인정한다면 페르시아인이 중동권으로부터 동아시아중해의 바닷길만을 따라 왔으며, 이질적 문화권인 동아시아의 현지사정 뿐 아니라 역신으로 상징되는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훤히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도대체 고대에 어떻게 그런 정보의 공유와 소통이 가능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은 처용의 ‘도해’모티프에 의한 스토리와 그를 받아들인 신라사회의 ‘환류’모티프에 의한 대응이라는 스토리에서 두루 찾아내야 한다.

처용이 등장한 신라의 사회상황은 토착적인 기존질서나 문물이 낡고 위태로워져 갈등과 위협이 상존하는 내부적 위함을 안고 있다.¹⁴⁾ 그럼에도 화해와 화합은 아직 자리 잡지 않았음을 알아챈 헌강왕은 ‘도해’한 처용을 받아들인다. 처용 스토리에 등장하는 ‘바다’와 ‘용’은 낡고 오염된 상태를 새롭게 신성하게 정화(淨化)하는 원형상징으로서의 ‘물’과 관련돼 있다.¹⁵⁾ 그 ‘물’에 의한 ‘환류’모티프에 의해 전개되는 또 다른 스토리는 처용에 의해 새로운 믿음체계와 법칙이 신라 사회 내부의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것으로 발전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토착 사회의 결락을 해소함과 더불어 나아가 그 사회와 진정한 화해와 안정을 이룩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QS(외래문화 수용) : QR(결락(缺落) 해소) ∴ FS(내부 변혁) : FR(화해와 안정)

그처럼 고대의 동아시아중해는 변혁의 주재자가 도래하는 공간이면서 과도기적 혼란을 해결하고 낡고 오염된 사회를 새롭게 정화, 갱신시키는 원리가 전달되고 반응이 일어나는 ‘환류’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3)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전개

처용 스토리 등이 온전히 스토리텔링에 응용되려면 동아시아중해 연안인 신라의 개운포, 별포, 그리고 감포가 국제교류의 무대로서¹⁶⁾ 당대 사회가 외래문화에 대해 개방적이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비로소 처용의 출발지를 소그드인 등 서역인이 살던 하서국(河西國), 즉 현재의 우즈베키스탄이라 보거나,¹⁷⁾ 황남대총과 천마총의 유리잔과 계림로 14호분의 금장

14) 이부영(1999), 『그림자』, 한길사, pp.78-80.

15) 홍경표(1985), 「용신설화와 그 상징체계 시고」, 『한국전통문화연구 1』, p.262.

16) 김해지역으로 추정되는 구사한국(狗邪韓國)은 한반도의 마지막 종착점이자 일본열도로 출발하는 기점으로, 김해 주촌면 양동리, 대성동에서는 국제적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다(윤명철(2003), 「해양사관으로 본 한국 고대사의 발전과 중언」, 『한국사연구(123)』, p.189)

단점을 근거로 페르시아라 보는 견해 모두 의미를 지닌다. 그 뿐 아니라 타슈켄트, 캄보디아, 인도, 아프리카, 동남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가 처용의 출발지가 될 수도 있고, 그로부터 고분과 화폐, 종교 등의 문물이 신라사회에 전해졌다고 볼 수도¹⁸⁾ 있다.

그러나 그런 사실(史實)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스토리에 설정된 정황이다. 처용의 등장 당시 신라사회는 외면적으로는 태평성대지만 왕의 행차를 ‘용’이 가로막고 ‘역신’¹⁹⁾이 수도에 나타나는 위기상황이었다. 헌강왕이 그런 위기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알고 있었음이 ‘도해’모티프가 이끄는 스토리에서 밝혀진다.(QS, QR)

스토리텔링 #1 : 순행길에 나선 헌강왕이 개운포에서 만난 동해용왕을 위해 절을 지어 주자 용왕이 일곱 아들을 데리고 나와 인사한다.

헌강왕에 의해 발탁된 처용은 신라사회 내부의 위기인 역병의 창궐을 이슬람계통의 향료와 약재로 퇴치하여²⁰⁾ 위기를 극복한다.(FS, FR)

스토리텔링 #2 : 처용이 우즈베키스탄(혹은 페르시아)에서 신라 개운포에 와서 신라사회의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환류’모티프가 이끄는 심층구조에서의 처용은 신라사회 내부를 변혁시킨다. 그로 인해 역신은 물러가자 사람들이 처용의 화상을 문에 그려 붙이면서 그는 마침내 문신(門神)으로 좌정하게 된다.²¹⁾(FS, FR)

스토리텔링 #3 : 역신을 물리친(내부를 변혁한) 처용의 신통력에 감복한 신라인들이 그를 문신으로 모셨다.

허황옥 스토리텔링 역시 마찬가지다. 그녀는 중국 회수, 사수 하류에서 산둥반도와 발해 연안을 거쳐 한반도 서해안과 남해안을 지나 가락국의 별포에 이르렀다고 여겨지는데, 당시의 별포는 중국과 한반도, 일본 규슈를 잇는 국제적 해상교통로의 기착지이자 교역의 중심지였다. 수로왕이 허황옥을 영접하는 모습이 마치 외국상선을 맞는 모습과 유사하다는 추론²²⁾도

17) 김창석은 원성왕릉인 괴릉과 흥덕왕릉의 무인석상도 ‘소그드인’이라 보고 있다.(김창석(2006), 『8-10세기 이슬람 제종족의 신라 來往과 그 배경』, 『한국 고대사 연구』 44, p.105, p.111.)

18) 흥덕왕 9년(834년) 신분질서 동요와 사치 풍조를 막기 위해 내린 조처에서 규제한 사치품을 통한 유추가 가능하다(김창석, 위의 글, p.101 재인용.)

19) 역신은 일반적으로 열병신(熱病神=천연두·홍역·학질을 일으키는 질병신)으로 보지만 ①병든 도시의 유한공자(遊閑公子), 곧 타락한 화랑의 후예의 상징, ②탐탁과 방탕 풍조에 빠져 있던 반도덕적인 패륜아의 상징, ③나라를 병들게 하는 어두움과 악의 화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20) 김창석, 위의 글, p.119.

21) 이는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다른 스토리에서 알영부인이 계룡의 옆구리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죽어 대지에 묻히고, 지룡의 아들인 무왕이 마를 캐는 일을 생업으로 대지와 합일하는 것과 흡사하다.

22) 김태식, 앞의 글, p.41.

물론 가능하다.

그런데 허황옥이 바다를 건너 찾아오기 전의 가락국은 나라 이름도 없고 군신의 칭호가 없었으며 수로왕이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배필이 없었다. 다른 무엇보다 고대국가의 기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로왕이 배필을 구하라는 신하들의 권유를 마다한 데서 드러나듯²³⁾ 정복군주와 토착세력의 제휴도 원만치 못했다. 따라서 허황옥의 등장은 고대국가 성립기 가야 내부의 결락(缺落)을 해소하는, ‘도해’모티프에 의해 전개되는 스토리텔링이다.(QS, QR) 이어 허황옥의 출현으로 옛것을 고치고 새것을 취해[革古鼎新] 고대국가의 기틀을 세우게 되고 그녀는 김해 허씨의 시조로서 뿌리를 내리는 ‘환류’로 이어진다.²⁴⁾(FS, FR)

석탈해 역시 용성국에서 알로 태어나 버림받은 존재라며 바다를 건너와 신라에 도착한다. 어쩌면 그는 난생설화를 지닌 부족의 후예로, 용성국에서 다른 부족과의 정통성 싸움에서 패한 존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해’를 통해 신라에 온 탈해는 왜로부터 온 호공을 솟과 솟들을 다루는 대장장이 후손, 즉 철기문화를 지닌 선조의 후예라는 정통성을 내세워 물리친다.(QS, QR)

그런 석탈해가 남해왕의 인정을 받고 마침내 왕위에 오른 것은 신라사회의 일시적 정통성 혼란을 바로잡은 결과라 볼 수 있다. 것처럼 석탈해 스토리텔링 역시 용성국에서의 정통성 문제로 인한 시비가 바다를 건너 신라에서의 수용과 인정과 성취, 즉 철기문화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환류’에 의해 형성되었던 것이다.(FS, FR)

3. ‘연오랑 세오녀’ 스토리의 스토리텔링

1) 원(原)스토리의 구조

『삼국유사』에 신라의 동해 바닷가에 연오랑 세오녀 부부가 살았다. 하루는 바다에 나가 해조를 따던 연오가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가서 왕이 되었다.(QS) : 남편을 찾아 나선 세오녀 역시 같은 바위를 타고 건너가 왕비가 되었다.(QR) :: 연오랑 세오녀가 일본으로 가자 문득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FS) : 세오녀가 짠 비단을 보내자 괴변이 사라지고 해와 달이 빛을 되찾았다.(FR)

2) 심층구조의 ‘환류’ 모티프

연오랑 세오녀 스토리의 표층구조는 일단 선진문물을 지닌 신라인의 해양진출이라는 ‘도해’ 모티프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이를 사실 그대로 해석하면 한낱 해조를 따던 신라의 평범한

23) 김태식(1997) 『가락국기 소재 허황후 설화의 성격』, 『한국사연구(102)』, pp.3-4.

24) 그밖에도 허황옥이 일본에 있던 가락국 분국에서 본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돌아온 인물이라거나(김석형, 1966), 인도 아요오디아 왕국이 타이 매남강가에 건설한 식민국 아유티아에서 온 왕녀라는 주장(이종기, 1977), 인도 아요오디아국에서 중국 사천성 안악현 가릉강 유역에 집단이주해 살던 허씨(許氏)족 중 황해를 타고 건너온 소녀라는(김병모, 1987) 주장 등도 가락국의 변혁 내지 위기 극복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이라 이해할 수 있다.

어민도 바다를 건너면 일본의 왕과 왕비가 될 정도로 당대 신라문화의 수준이 높았다고 보는 견해²⁵⁾도 타당하게 들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간의 한일 간 고대사 논쟁을 살펴보면, 각자의 국가적 위상을 우위에 두기 위한 주장이 봇물을 이루어왔다. 예컨대, 일본측 『고사기(古事記)』나 『풍토기(風土記)』에서는 외래인이 일본열도에 간 경우를 ‘도래(度來)’라 하는데, 『일본서기(日本書紀)』만 유독 ‘귀화(歸化)’라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문물을 전해주러 일본으로 건너간 한반도인이자라면 구태여 귀화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일본학자조차 이 점을 지적하며 해당시대에 ‘귀화’라는 말이 일본사회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이를 “일본관 중화사상”이라 비판한다.²⁶⁾ 고대 동해지중해에서의 ‘도해’는 소규모 부족 간에 이루어진 대등한 이동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우열도 정세변화에 따라 수시로 달라졌을 터이므로 이를 오늘날의 국민국가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건강부회(牽強附會)에 가깝다.

과연 일본의 왕과 왕비가 된 연오랑 세오녀가 다시 신라의 해와 달을 되찾아주고자 나선다. 말하자면 앞서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환류’모티프를 지닌 스토리로 발전하며, 그로써 양자 간에 균형 잡힌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선진문물을 지닌 신라인이 일본에 진출해 문화적 진보에 기여하고자 하더라도 ‘섬나라 근성[島國根性]’을 지닌 일본인들이 이를 수용했겠냐고 되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바다를 통한 교류의 스토리는 바다의 속성인 ‘갱신(更新)’과 ‘조화’, ‘개방성’에 의해 얼마든지 다른 차원의 다른 스토리로 발전할 수 있다. 실은 일본학자들마저 고대 일본인들이 생각한 ‘섬나라 근성[島國根性]’은 오늘날과는 정반대로 ‘개방성’의 의미였다고 본다.²⁷⁾

따라서 적어도 스토리텔링에 의해 보면 이제는 한국에서도 연오랑 세오녀 스토리를 우월한 한국 고대문화의 전달로만 못 박는 견해의 부분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양국 간에 상대를 ‘이인’이나 ‘오랑캐’로 보는 적대관이 형성된 것은 일본학자의 견해로 5세기 후반으로²⁸⁾, 그 전에 벌어진 일을 국가 성립 이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오류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에 전해준 문화가 새로운 문화로 창조되어 역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전혀 생각하지 말란 법은 없다.

QS(선진문물의 전달) : QR(문화적 진보) :: FS(문화의 접목) : FR(새로운 문화 창조)

『고사기』나 『일본서기』에 나오는 왕인 스토리텔링은 일본에 문물을 전해준 대표적 인물의 예로 흔히 인용되곤 한다.²⁹⁾ 하지만 그 내용이 실제로는 일제가 이른바 “내선일체(內鮮一

25) 임동권(2004) 『한국에서 본 일본의 민속문화』, 민속원, p.289.

26) 上田正昭(1989) 「古代日朝關係史の視點」, 上田正昭 姜在彦 編, 『日本と朝鮮の二千年』, 大阪書籍, pp.45-50.

27) 上田正昭(1997) 『東アジア海上の道』, 明石書店, p.3.

28) 上田正昭(1997) op. cit., p.15.

29) 전남 영암의 구림마을 전설이나(강봉룡(2004), 『한국 해상세력 형성과 변천』, 재단법인 해상왕장보 고기념사업회, pp.44~48.) 오사카시 북쪽 히라카타시(枚方市) 후지시킴(藤坂村)의 ‘오하카타니(御基谷)’, 오사카시 왕인박사 신사, 왕인성당지(王仁聖堂址) 등으로 보아 활발한 문화전래가 있었음은 분명하다(한일관계사학회(1998),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자각나무, pp.62-73.)

體)”를 강조하려는 저의에서 만들어낸 것이라면³⁰⁾ 한국이 이를 근거로 국세를 과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고구함 없이 천자문 전달만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오랑 세오녀 스토리의 심층구조는 ‘환류’에 의해 한반도와 일본열도 간의 교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전개

고대 신라의 해상세력이 일본행 ‘도해’의 출발지로 삼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한반도 지역은 실로 무수하다. 동해안의 영일만이나 울산만 부근, 그리고 박제상에 관한 기록에서의 울포(栗浦)(울주군 청량면 영취산 동쪽 산기슭)가 그곳들이다. 이들 지역에서 연오랑 세오녀 스토리텔링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선진문물을 전해준 신라인의 해상활동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일본서기』 숭신(崇神) 65년조의 임나국이 소나가시치[蘇那曷叱智]를 파견하여 “조공해 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일본서기』의 아메노히보코[天日倉] 설화나 『고사기』의 아메노호코[天日矛] 설화와 유사한데,³¹⁾ 특히 전자는 신라왕자 아메노히보코가 7가지 신물(神物)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연오랑 세오녀는 아메노히보코처럼 왕족도 아니고 신물(神物)도 지니지 않은 채 한 날 ‘해조(海藻)’를 따다가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왕과 왕비가 되었다. 『일본서기』에는 신라나 발해를 의도적으로 ‘번국(蕃國)’으로 낮추어보고자 애쓰는 자국우월주의가 곳곳에 넘치지만³²⁾, 연오랑 세오녀의 ‘도해’모티프가 우월한 신라문화의 전달을 암시하는 점은 사실이라 할 수 있다.³³⁾ 실제로 일본인들이 고대 울령국가 성립 이전에는 ‘이인’을 외경으로 영접했음이 사실이기 때문이다.³⁴⁾

마찬가지로 『이즈모[出雲]국 풍토기』에는 “당초 일본의 국토가 좁은 것이 못마땅했던 야츠카미즈오미츠노미도토[八束水臣津野命]신이 신라의 국토에서 여분인 곳(岬) 세 군데를 야금야금 가래로 파 옮겨 일본에다 붙였다”는 서술이 있다. 이는 한반도와 키타큐슈[北九州], 이즈모[出雲], 타지마[但馬], 와카사[若狹], 에치젠[越前]을 왕래하던 해인부족(海人部族)의 설화로 보인다.

위와 같은 기록이라면 한국식 지명이나 문물이 명확하게 남아있는 지역을 근거로 ‘도해’모티프를 지닌 스토리텔링을 시도해도 좋을 것이다.³⁵⁾ (QS, QR)

30) 김병인(2004), 『역사의 지역축적적 재해석』, 민속원, pp.152-54, pp.172-174.

31) 임동권, 앞의 책, pp.269-294. ; 윤명철(1996), 『동아시아중해와 고대 일본』, 청노루, p.94.

32) 上田正昭(1997), *ibid.*, p.12.

33) 조동일은 『신라수이전』을 인용한 서거정의 『필원잡기』에서 『삼국유사』와 유사한 내용을 찾았고, 『동국여지승람』 권23 영일현 고적조와 누정조에서 ‘영오(迎鳥)’가 일본에 가서 작은 섬의 왕이 되었으며 신라인들이 제사지내던 ‘도기야일월지(都祈野日月池)’란 장소를 알린 기록을 찾아내어 연관지어 보았다. 또, 강항의 『간양록』에서는 일본인이 신라인 ‘일라(日羅)’를 신으로 섬기는 풍속이 있다는 기록도 참고하고 있다.(조동일(1989),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pp.21~23.)

34) 上田正昭(1997), *ibid.*, p.16.

35) 한국식 지명이 남아있는 후쿠오카현 카에[伽倻]산, 카라[韓良], 카라[韓良]항, 타타라[多多羅]천, 타타

스토리텔링 #1 : 연오랑 세오녀가 신라 영일만(혹은 울산만 등)을 떠나 바위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왕과 왕비가 되었다.

그런데 『일본서기』에는 “스사노오노미고토가 가라구니[韓鄉]에 많이 있는 금은을 가지러 가고 싶어 수염과 눈썹을 뽑아 배를 만들었다”는 서술이³⁶⁾ ‘신공황후 출병설’과 더불어 주목된다. 일본은 큐슈 북동부와 쓰루가[敦賀], 야마게[山陰] 이즈모[出雲] 등지에서 활약하던 “오키나기[息長]족”, 즉 해인부족의 전설인 이 스토리를 자국이 고대사의 우위를 차지했다는 근거로 내세운다. 하지만 일본이 그렇게까지 절대적 우위를 차지했을 가능성은 찾기 어렵고, 더구나 한반도세력이 가야와 신라, 혹은 백제와 신라로 나뉜 상황에서 일본이 어느 한쪽만 상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³⁷⁾ 그래서 『후젠(豊前)국 풍토기』에서 신라 정벌에 나선 주인공 ‘카라쿠니[辛國]’는 실제로 ‘신라’ 아닌 신라에 원한을 가진 ‘대가야’의 신³⁸⁾이었을 것이다.

고대 일본의 한반도 정벌이 사실은 아닐지라도 그런 서설에 암시된 ‘환류’는 일본으로 건너간 한반도세력이 다시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드러낸 모티프라 할 수 있다.(FS, FR)

스토리텔링 #2 :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자 연오랑은 세오녀가 짠 비단을 신라에 보내서 그 변괴를 바로잡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단 일본에 정착한 이후에는 한반도인도 차차 현지 토착문화에 적응해 살면서 이중적, 경계적, 중간적 정체성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연오랑 세오녀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모국으로 보내는 ‘환류’가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FS, FR)

스토리텔링 #3 : 모국을 떠나 일본에 정착한 한반도인은 모국과 일본을 오가는 해상활동으로 양국의 운명에 직, 간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多多羅]촌, 사가현 카라츠[唐津], 야마구치현 아나[穴], 타라[多羅], 타타라[多多羅]산, 오카야야마현 카야[伽倻]군, 카가와현 아야군, 나라현의 카야나루미[賀夜奈流美]신사, 치마현 타타라[多多羅] 등지(부산·경남 역사연구소, 『시민을 위한 가야사』, 집문당, 1996, 93쪽.)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서의 야마타이국 등 부족국가, 돗토리현이나 시마네현, 도야마현 등지의 사우돌출형(四隅突出形) 고분, 이즈모(出雲) 일대의 신라계 유물, 키타큐슈와 야마구치의 한국식 산성, 후쿠오카현 동부와 오이타현 중부 지역 ‘豊’을 ‘카라(韓良)’라 읽는 독음 등을 한반도로부터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스토리텔링에 활용할 수 있다.

36) 和歌森太郎(1972), 『日本史の虚像と実像』, 毎日新聞社, pp.42-48.

37) 『일본서기』에 의하면 계체천황 21년(527년)에 야마도 정권이 가야를 부흥시키려고 6만 대군으로 신라를 치려 하자 신라와 연결된 치쿠시 호족이 반란을 일으켰다.

38) 큐슈의 후쿠오카현 타가와시 카와라[香檳] 신사에 모셔진 ‘카라쿠니오키나기오오히메오오메[辛國息長大姫大目命]’ 여신의 이름에서 ‘카라쿠니[辛國]’는 신라인지 가야인지가 불분명하다. 어쨌든 4세기 말부터 큐슈와 토오카이, 호쿠리쿠 등지에 가야의 토기가 유입되고 도공이 도래하는 등 교역관계가 형성되고 토기와 함께 철정(鐵鋌)과 단야구(鍛冶具), 武具(무구) 등도 도입되었음은 분명하다.(大塚和義(2005), 『日本海學の新世紀⑤ : 交流の海』, 角川學藝出版, pp.150-151.)

III. 본론(2)

1. 해양관광 루트 설정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고대 동아시아중해 교류형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해양관광 루트와 그에 따른 문화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

우선 해양관광루트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서북 스토리텔링이 전해지는 중국의 ‘**남야군 서산 - 해주만 구산 - 절강성 자계 및 주산 - 강소성 해주 - 산둥성 등주만 - 교주만 - 영성만 - 천진두 - 석도만 - 하북성 진황도 및 황하**’를 순환하는 코스에 이어 한국의 ‘**제주도 - 완도 - 남해 - 영도**’ 그리고 일본의 ‘**사가현 - 와카야마현 신구우시 -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 - 쿠마노 - 후지산**’을 연결하는 노선을 구상할 수 있다.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허황옥 스토리텔링을 응용하여 중국 ‘**사천성 가릉강 하구 - 양자강 하구 - 상해 - 한국 김해**’에 이르는 코스를 만들 수 있고,³⁹⁾ 다시 연오랑 세오녀 스토리텔링으로 한반도인이 일본으로 가던 해상코스⁴⁰⁾ ‘**부산 - 큐슈 북부 - 혼슈 남단**, 혹은 ‘**거제도 - 대마도 - 큐슈 북부나 서부**’, 또는 ‘**전라도 - 남해 - 큐슈 서부 고토 열도 - 큐슈 서북지역**이나 ‘**아리아케카이(有明海) - 큐슈 중부지역**’, 혹은 ‘**울산이나 포항 - 대한해협 북부 - 혼슈 남단 이즈모 - 쓰루가**’ 등의 코스를 해양관광루트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서북 스토리텔링에 대한 각국의 견해가 일관된 루트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장차 동아시아중해의 자연환경이나 문명사의 영향관계, 그리고 크루즈선 운항의 방법을 고려해가면 3국이 논의를 하면 일관된 스토리텔링 모델을 만들어 그에 따른 해양관광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⁴¹⁾

나아가 동아시아중해 교류형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작해 지역정체성의 제고와 문화산업 부흥에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서북 스토리와 관련된 예를 들면, 중국 위해(威海)시가 서북의 출발지로 소개하는 유공도(劉公島)를 근거로 지역정체성을 고취하는 것, 그리고 하북성(河北省) 진황도시(秦皇島市)의 서북 비석과 동상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 제주도에는 서북의 도래를 그린 벽화와 선박모형, 서북의 마애명을 남긴 정방폭포 모형, 진시황의 청동마차와 병마용갱(兵馬俑坑) 등을 전시하는 서북전시관이 있다. 일본에는 사가현에 서북의 전설에 등장하는 것이라 소개하는 지명(‘부바이’)과 유적(우물), 자연물(신목 ‘마크신’, 불로장생약 ‘후로후키’)과 서북장수관 등이 있다.⁴²⁾ 이런 문화콘텐츠 역시 장차 3국 간 통합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미지가 통합된 서북 캐릭터나 다매체문화상품을 비롯하여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시나리오, 소설, 희곡)나 게임, 그리고 서북의 해상활동을 추체험하는 이벤트, 서북의 도래로 인한 도교적 영향을 돌아보는 기념사업이나 기념물 등 다양한 문화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39) 부산·경남 역사연구소, 앞의 책, p.48.

40) 윤명철, 『동아시아중해와 고대 일본』, p.163.

41) 원도현(2012), 「한중연해지역의 관광산업과 아시아문화수도 : 동아시아중해의 관점」,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74.

42) 이윤선·한은선, 위의 글, p.148.

2. 이문화에 대한 이해

이처럼 동아시아중해 교류형 스토리텔링에서의 ‘바다’는 단순한 도상적 이미지가 아니라 ‘도해’라는 모티프로써 본질적 내용을 함축한 주제적 이미지가 되거나 여러 의미를 두루 함축하는 상징적 이미지이다. 바다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동아시아중해 교류형 스토리텔링은 자신과 타인이 어떻게 교류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교육적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용 스토리에서의 동해용이나 처용, 그리고 역신은 이질적 존재인 ‘이인’⁴³⁾들이다. 물론 ‘도해’모티프에 의해서만 생각한다면 동아시아중해에서 고대 ‘이인’은 이향, 이국으로부터 온 존재들이다. 그러나 심층구조에서 ‘환류’모티프에 의해 발전한 스토리에서는 ‘이인’이란 바라보는 주체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 주체의 의식이 투사된 ‘다른 자아’이거나 ‘내부의 적’이거나⁴⁴⁾ ‘내부의 취약한 존재’이다.⁴⁵⁾ 따라서 그들을 앞서의 ‘도해’ 모티프의 주인공들처럼 다만 글로벌시대에 출현한 디아스포라로만 바라보지 말고, ‘환류’ 모티프를 찾아낼 때처럼 낯선 자아에 자신을 되비춰 돌아보는⁴⁶⁾ 훈련이 필요하다. 것처럼 이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면 협소한 자아를 확대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문화적 이념과 종교, 신분과 성별의 차이를 없애는 자성과 발전의 계기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그런 설화의 ‘이인 접대’로부터 ‘호스피탈리티(hospitality) 정신’을 찾아내어 계승할 수도 있다. ‘이인’을 신의 대리인이나 ‘손님’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이인 환대의 전통’으로 승화시켜 현대에 필요한 ‘호스피탈리티 정신’을 찾아내어 관광이나 비즈니스에 필요한 덕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⁴⁷⁾

소위 ‘글로벌시대’를 맞은 현대의 한국인들이야말로 장애인이나 한센 병 환자, 성적 소수자, 특히 화교나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배우자 등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덕목이 필요한 때이다. 이런 때에 동아시아중해 교류형 스토리텔링을 활용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그 한 예로, 울산시나 부산시 사상구가 처용과 관련된 문헌사적 검토와 유적 발굴을 병행하여 다양한 처용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외국인 근로자 축제’ 등으로 ‘이문화 수용도시’로서의 이미지화를 꾀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로써 한국인들도 21세기 동아시아중해 시대를 지향하면서 새로운 자아와 공동체문화를 형성해갈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⁴⁸⁾

43) 설화에 등장하는 귀신이나 객승 등으로, 현대적으로는 종교인, 예술인, 상인, 걸인, 방랑자, 심지어 야쿠자가 이에 해당한다.(橋 弘文, 「二つホスピタリティ」(小松和彦選歴記念論集刊行會, op. cit.), pp.41-42.)

44) 야마구치 마사오, 김무근 옮김(2003), 『문화의 두 얼굴』, 민음사, p.95.

45) 이부영(1999), 앞의 책, pp.78-80.

46) 이문화 소개자인 처용을 구태여 빅토르 터너 식으로 나누어 보자면 ‘주변인’에 해당하고, 역신은 ‘아웃사이드’에 해당하지만 내부의식이 만들어낸 타자인 점에서는 양자가 공통적이다.(V. Turner, op. cit., p.233.)

47) 橋 弘文(2000), 「無法者とその身体」, 小松和彦編, 『記憶する民俗社會』, 人文書院, pp.41-42.

48) 한건수(2006), 「한국사회와 아프리카 문화의 상상과 소비」(문옥표 외, 『우리 안의 외국문화』, 소화), p.154.

IV. 결론

동아시아중해 지역은 고대부터 활발한 국제교류형 스토리가 전해지고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창출되던 공간이다. 그럼에도 크루즈선을 이용한 해양관광마저 이런저런 제약을 받게 된 것은 국가 간의 충돌로 도식적이고 틀에 박힌 일국적 시각이 고착되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듯 동아시아중해 교류형 스토리텔링은 ‘도해’ 모티프에 의한 스토리에 그치지 않고 주체나 사회상황, 그리고 주인공의 자질이나 증여의 내용에 따라 ‘탐색’과 ‘사상의 전파’, ‘외래문물 전파’와 ‘내부 변혁’, ‘선진문물 전달’과 ‘문화적 혼종’ 등 ‘환류’ 모티프에 의한 스토리로 발전되고 있다. 이처럼 탈국가적인 가치와 양상이 풍부한 동아시아중해 교류형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면 오늘날 필요한 동아시아중해 지역 간 교류와 문화적 수용, 그리고 이를 응용한 교육과 관광, 문화콘텐츠 개발을 복돋을 수 있다.

특히 한반도는 고대로부터 대륙과 해양을 공히 활용하며 동해, 남해, 황해, 동중국해를 연결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다른 어느 국가나 지역보다 앞서 동아시아중해 교류형 스토리텔링의 개발과 활용에 앞장서야 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 성단구 역주(1993) 『일본서기』, 고려원.
 노성환 역주(2009) 『고사기』, 민속원.
 김성구 발췌 번역(1996) 『中國正史朝鮮列國傳』, 동문선.
 이운선·한은선(2007) 「한국 서북전설의 현황과 관광자원화 방향」, 『도서문화』 제30집.
 원도현(2012) 「한중연해지역의 관광산업과 아시아문화수도 : 동아시아중해의 관점」,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김창석(2006) 「8-10세기 이슬람 제중국의 신라 來往과 그 배경」, 『한국 고대사 연구』 44집.
 김태식(1997) 「가락국기 소재 허황후 설화의 성격」, 『한국사연구(102)』.
 윤명철(2003) 「해양사관으로 본 한국 고대사의 발전과 종언」, 『한국사연구(123)』.
 미즈노 아키라(2002) 「일본에서의 徐福에 관한 傳承과 信仰」, 『제주도 연구』21집, 제주학회.
 윤명철(1996) 『동아시아중해와 고대 일본』, 청노루.
 한일관계사학회(1998) 『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 자작나무.
 임동권(2004) 『한국에서 본 일본의 민속문화』, 민속원.
 강봉룡(2004) 『한국 해상세력 형성과 변천』, 재담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조동일(1989)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진성기(1993) 『제주도 전설』 백록.
 부산.경남 역사연구소(1996) 『시민을 위한 가야사』, 집문당.

- 홍경표(1985) 「용신설화와 그 상징체계 시고」, 『한국전통문화연구 1』.
- 문옥표 외(2006) 『우리 안의 외국문화』, 소화.
- 김병인(2004) 『역사의 지역축제적 재해석』, 민속원.
- 이부영(1999) 『그림자』, 한길사.
- 장 페이지, 김승일 역(2005) 『한중교류사』, 범우.
- AD de Vries(1976) 『Dictionary of Symbols and Imagery』, NORTH PUBLISHING COMPANY, AMSTERDAM & LONDON,
- 야마구치 마사오, 김무곤 옮김(2003) 『문화의 두 얼굴』, 민음사.
- 大塚和義(2005) 『日本海學の新世紀⑤：交流の海』, 角川學藝出版.
- 上田正昭(1997) 『東アジア海上の道』, 明石書店.
- 上田正昭(1989) 「古代日朝關係史の視點」, 上田正昭, 姜在彦 編, 『日本と朝鮮の二千年』, 大阪書籍.
- 和歌森太郎(1972) 『日本史の虚像と實像』, 毎日新聞社.
- 小松和彦+關一敏 編(2002) 『新しい民俗學へ』, セリか書房.
- 孫光圻(1989) 『中國古代航海史』, 海洋出版社.

【 논문초록 】

키워드 (Key words)	동아지중해, 교류, 스토리텔링, 해양관광, 이문화 교육 East Asian Mediterranean, interchange, storytelling, maritime tourism, education about the foreign culture
<p style="text-align: center;">A study on the storytelling of interchange in East Asian Mediterranean</p> <p style="text-align: right;">Kim, Jung-Ha</p> <p>This study aims at analysis of story about the crossing the East Asian Mediterranean, making storytelling model and its adaptation to cultural industry as tourism and education. For the purpose, this treatise tries to analyze the five stories which have been delivered in Korea from ancient times.</p> <p>The five stories are those in which ‘Seo-Bok’, ‘Cheo-Yong’, ‘Heo Whang-Ok’, ‘Seok Tal-Hae’ and ‘Yon O-Rang and Se O-nyo’ are the hero and heroine. In those stories, the East Asian Mediterranean is described as such space to find for a herb of eternal youth, strange man and woman come out from far abroad, and mutual cultures had been interchanged. Especially the cultural interchange were accomplished for the purpose of not only one’s search or development but also the other’s revolution or prosperity.</p> <p>As the result of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m, this treatise got the opinion the five stories are the evidence of mutual interchange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it is possible to make a route to tour around the East Asian Mediterranean, and to educate and learn the people residing in East Asia that strange persons and foreigners in each society must be welcomed as justifiable citizen.</p>	
필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김정하 (영문): Kim, Jung-Ha 국문제목: 동아지중해 교류형 스토리텔링 시론 영문제목: A Study on the storytelling of interchange in East Asian Mediterranean 소속: 한국대학교 동아시아학과 E-mail: jkim@hhu.ac.kr
논문작성 일시	투고일 : 2012. 10. 31. 심사일 : 2012. 11. 12. 심사완료일 : 2012. 11. 22.